



◆ [Focus]

- (인프라) 美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 통과 1주년 실적 평가

◆ [What's News]

- (우회덤핑) 미 상무부, 중국 태양광 우회덤핑 예비 판정 발표
- (실업률) 실업률 발표와 12월 금리 인상률 예상
- (공급망) 철도노조 파업 저지 법안,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최종 통과
- (IPEF) 미 상원,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위헌 소지 제기
- (정상회담) 백악관, 미·프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FOCUS

1. 美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 통과 1주년 실적 평가

가. 조사 배경

□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이하 '인프라법') 11.15부로 입법 1주년 경과

- 백악관은 1년 동안 인프라법의 예산배정과 프로젝트 지원 현황 공개
 - 전국적으로 총 1,850억 달러 예산을 배정하여 1만여 개 프로젝트 지원

□ 1조 2천억 달러 예산의 인프라법은 작년 대통령 서명(11.15)으로 최종 입법

- 전체 중 신규 편성 예산은 5년 동안 약 5,500억 달러로 주·지방 정부의 육상·해상 교통, 통신망, 에너지, 상하수도 등 인프라 사업 지원 목적
 - * 교통(2,840억 달러), 상하수도(550억), 광대역 인터넷(650억), 에너지·전력(730억), 환경(210억), 수자원(83억), 기타 재난 대비(460억) 등

< 인프라법 신규 편성예산 내역 >

분야		예산 (억 달러)	전체 비중
교통	도로·교각	1,100	19.9%
	대중교통	390	7.1%
	철도	660	12.0%
	교통안전	110	2.0%
	공항·항만·수로	420	7.6%
	전기차 충전소·전기버스	150	2.7%
	지역 간 연결	10	0.2%
상하수도	550	10.0%	
광대역 인터넷	650	11.8%	
에너지·전력	730	13.2%	
환경	210	3.8%	
서부 수자원 인프라	83	1.5%	
재난 대비	460	8.3%	

[자료]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2021 · Forbes.com · National Association of Counties

나. 인프라법 예산 집행 실적

- (분야) △교통, △광대역 통신망, △기후·에너지·환경, △기타로 예산 구분
 - (교통) 총 1,485억 달러(7,480건) 예산배정으로 전체의 79.8%(금액 기준) 차지
 - 도로·교각에 교통 예산의 75.3%인 1,119억 달러가 배정됐고, 다음으로 대중교통(10.0%), 항만·수로(5.5%), 교통안전(4.9%) 등 순
 - (기후·에너지·환경) 전체의 19.2%인 총 359억 달러(2,657건) 배정
 - 회복성(resilience) 38.5%, 수질개선 29.3%, 친환경 전력·에너지 23.6% 배정
 - (광대역 통신망) 총 98건 프로젝트에 약 18억 달러 배정(0.9%)
 - (기타) 전체 136건 프로젝트에 약 2억 달러 배정

< 인프라법 예산배정 집행 현황 (2021.11~2022.11월) >

대분류	소분류	배정(달러)	총계 대비
교통	공항 항공 시설	3,858,521,600	2.1%
	전기차 페리 버스	2,416,232,000	1.3%
	항만 수로	8,240,432,450	4.4%
	대중교통	14,869,843,649	8.0%
	도로 교각 등	111,864,220,086	60.0%
	교통안전	7,278,258,034	3.9%
	소계	148,527,507,819	79.7%
기후 에너지 환경	친환경 전력 에너지	8,471,613,494	4.5%
	환경 개선	3,087,150,036	1.7%
	회복성	13,804,788,432	7.4%
	수질개선	10,497,722,149	5.6%
	소계	35,861,274,111	19.2%
광대역 통신망	1,759,198,237	0.9%	
기타	189,783,995	0.1%	
총계	186,337,764,162	100.0%	

[자료] 연방 총무청(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 (집행부처) 교통부가 전체 76.4%인 1,424억 달러 예산을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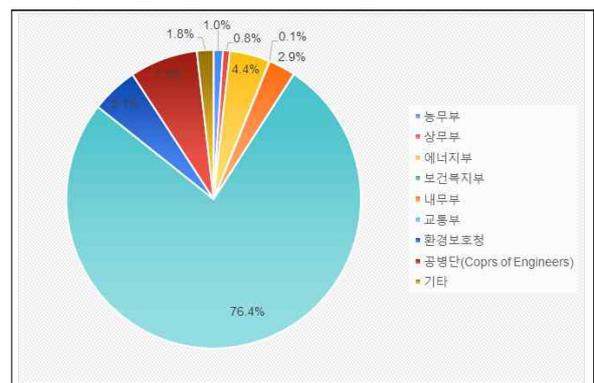
- 다음으로 공병단(Coprs of Engineers), 환경보호청, 에너지부 등 순으로 주·지방 정부가 주관하는 인프라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역할 담당

< 부처별 인프라법 예산 집행 현황 >

구분	배정(달러)	건수
농무부	1,897,484,651	419
상무부	1,422,957,600	89
에너지부	8,209,541,743	770
보건복지부	100,000,000	57
내무부	5,494,854,160	440
교통부	142,400,315,111	6,776
환경보호청	9,517,960,965	833
공병단	13,882,299,909	891
기타	3,412,350,083	37

[자료] 연방 총무청

< 부처별 인프라법 예산 집행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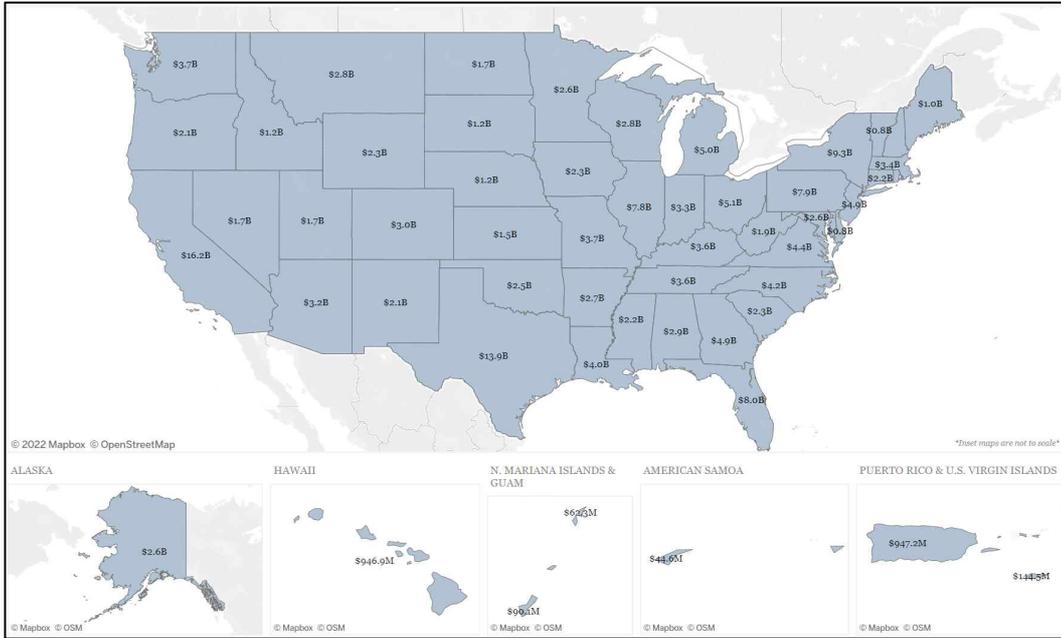


[자료] 연방 총무청

□ (지역)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일리노이가 상위 수혜 주

- 캘리포니아가 전체의 8.7%(62억 달러)로 가장 많은 예산을 받았고, 텍사스 7.5%, 뉴욕 5.0%, 플로리다 및 펜실베이니아 각각 4.3% 등 순

< 인프라법 예산배정 집행 현황 (2021.11~2022.11월) >



[자료] 연방 총무청

-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전체 수혜 예산의 86%가 교통 프로젝트에 편성되고, 기후·에너지·환경 사업에 13.5%가 배정됐다.

< 인프라법 예산배정 상위 주별 예산 용도 >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Total Announced BIL Funding: \$16.2B	Total Announced BIL Funding: \$13.9B	Total Announced BIL Funding: \$9.3B
% of Funding per BIL Category	% of Funding per BIL Category	% of Funding per BIL Category
Transportation ██████████ 85.67%	Transportation ██████████ 87.71%	Transportation ██████████ 87.62%
Climate, Energy, and the Environment █ 13.47%	Climate, Energy, and the Environment █ 12.22%	Climate, Energy, and the Environment █ 12.31%
Broadband 0.78%	Broadband 0.00%	Broadband 0.00%
Other 0.08%	Other 0.07%	Other 0.07%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일리노이
Total Announced BIL Funding: \$8.0B	Total Announced BIL Funding: \$7.9B	Total Announced BIL Funding: \$7.8B
% of Funding per BIL Category	% of Funding per BIL Category	% of Funding per BIL Category
Transportation ██████████ 77.91%	Transportation ██████████ 76.33%	Transportation ██████████ 75.28%
Climate, Energy, and the Environment █ 22.02%	Climate, Energy, and the Environment █ 23.63%	Climate, Energy, and the Environment █ 24.05%
Broadband 0.00%	Broadband 0.00%	Broadband 0.62%
Other 0.07%	Other 0.04%	Other 0.04%

[자료] 연방 총무청

다.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상위 3개 주)

□ 캘리포니아

- LA 공항 현대화 사업 (LAX Modernization)
 - 연방항공청은 LA 공항 여객 수용력 향상을 위해 공항 주변 도로 개선, 출입구 및 주차장 업그레이드에 5,000만 달러 예산배정
- 롱비치 항만 증설
 - 공병단은 롱비치항의 항법 시스템 개선을 위해 8백만 달러 예산배정
- 산불 위험 감축 사업
 - 농무부가 2,200만 달러 예산을 배정해 스테인리스 지역 소방 체계개선
- 샌디에이고 해변 지역 정비사업
 - 공병단은 약 3,000만 달러 예산으로 서남부 해안 지역의 백사장 해변 라인 정비, 방파제 건설, 기타 인프라 구축 지원
- 댐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개보수 사업
 - 내무부가 1억 달러를 지원해 지진 발생 시 BF Sis 댐 안전성 향상

□ 텍사스

- 라레도 국제 공항 청사 확장 공사
 - 공항 검색대의 승객 처리 효율 개선 등을 위해 250만 달러 지원
- 텍사스 교통 네트워크 개선 보조금
 - 텍사스 전역에 교각, 조정, 산책로 신설 및 개보수에 2,500만 달러 배정
- 텍사스 항만 컨테이너 바지 인프라 구축 사업
 - 컨테이너 항만의 상·하역 작업장 확장 공사 및 바지선 개보수 등 사업에 총 2,700만 달러 예산을 배정하고 공급망 병목 해소 추진

○ 루복 시의 도심 버스 친환경 전환 사업

- 교통부는 약 4,000만 달러 예산으로 루복 시의 도심 버스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하는 등 청정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 지원

□ 뉴욕

○ 뉴욕시 복합 교통 시설 구축

- 도심 교통 터미널, 전기차 충전시설, 태양광 패널, 스마트 트럭 수화물 시설 등 건설을 위해 1억 달러 예산배정

○ 뉴욕시 공원 가든 관개 시스템 사업

- 뉴욕시 4개 카운티 내 공원의 관개 시스템 개선에 4,700만 달러 예산

○ 청정 통학버스 전환 사업

- 환경보호청은 뉴욕시에 1,850만 달러를 지원해 전기 통학버스 51대 구매, 충전 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 전환 프로그램 추진

* 자료 : 백악관(11.15), 연방 총무청(10.28 현재) 등

□ **[우회덤핑] 美 상무부, 중국 태양광 우회덤핑 예비 판정 발표**

- 상무부, 중국산 태양광 셀·모듈의 우회덤핑 예비 판정 결과 발표(12.02)
 - 중국 태양광 제품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경유를 통해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를 회피한다는 혐의 조사
 - 지난 4.1 상기 4개 국가 소재 8개 태양광 업체 대상 조사 착수
- 이번 상무부 조사 결과 8개 중 4개 업체가 중국에 부과한 반덤핑·상계 관세를 우회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예비 판정
 -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한화는 조사 결과 우회덤핑 “혐의 없음” 판정
 - 이번 발표는 예비 판정으로, 상무부는 앞으로 수개월 내 해당 기업에 대한 현장 감사를 거쳐 내년 5.1까지 최종 판정 예정

< 중국산 태양광 우회덤핑 조사 예비 판정 결과 >

3국	조사 대상 기업	예비 판정 결과
캄보디아	BYD Hong Kong	긍정 (Circumventing)
	New East Solar	부정 (Not Circumventing)
말레이시아	Hanwha	부정 (Not Circumventing)
	Jinko	부정 (Not Circumventing)
태국	Canadian Solar	긍정 (Circumventing)
	Trina	긍정 (Circumventing)
베트남	Boviet	부정 (Not Circumventing)
	Vina Solar	긍정 (Circumventing)

[자료] 미국 상무부

- 지난 6.6 바이든 대통령 포고령(Proclamation)을 통해 상기 4개 국가에 대한 우회덤핑 부과를 24개월 동안 유예 조치
 - 따라서, 이번 우회덤핑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24.6월까지 상기 국가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면제 예정

* 자료 : 상무부(12.02)

□ [실업률] 실업률 발표와 12월 금리 인상을 예상

- 11월 실업률, 일자리 증가와 실업률 유지로 호조세 발표
 - 노동통계국은 11월 실업률이 전월과 같으며(3.7%), 올해 3월부터 비슷한 실업률이 유지된 자료를 두고 노동시장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12.2)
 - 보고서는 소매업, 도매업, 물류 등의 일자리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가 서비스, 호텔, 의료업 등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11월 최종 일자리 숫자가 약 26만 3,000개 증가했다고 분석
 - WSJ은 미국의 노동시장 강세 유지에도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면 기업의 인원 감축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평가하며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속도가 하향될 것이라고 예상
 - 하지만,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의 강세가 임금 상승을 불러오고 임금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물가상승률에도 소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 예고

* 자료 : 노동통계국 보도자료(12.2), 월스트리트저널(12.2)

□ [공급망] 철도노조 파업 저지 법안,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최종 통과

- 미국 철도노조 파업 저지 법안이 양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미국 철도 파업 조기 정상화 전망
 - 미국 철도노조 12개 중 4개 노조의 노사 합의안 투표 부결로 노조는 12.8까지 사측에 합의를 촉구, 미이행 시 12.9에 파업 예고
 - 가시화되었던 미국 철도노조 파업은 저지법의 하원 통과(11.30), 상원 통과(12.1) 및 바이든 대통령 최종 서명(12.2)으로 인해 최악의 사태는 피할 전망
 - 통과한 법안은 철도노조의 기존 합의안인 향후 5년간 임금 24% 인상과 매년 보너스 5,00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일부 노조는 유급 병가 일수 부족으로 해당 합의안을 부결

* 자료 : 워싱턴포스트(12.2)

□ (IPEF) 미 상원,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위헌 소지 제기

- 상원은 의회 동의 없는 IPEF 추진이 위헌이라는 문제 제기
 - 바이든 정부는 12.10~12.15까지 호주에서 1차 IPEF 고위급 협상을 앞둔 가운데, 상원 재무위원회는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협상은 위헌이라는 서면 제출 (12.1)
 - 론 와이든(Ron Wyden) 민주당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과 마이크 크레이포(Mike Crapo) 공화당 상원 재무위원회 의원은 “외국과의 상업 규제”가 상원의 헌법적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우려 표시
 - 서면은 IPEF가 상호 관세 인하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포함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의회 승인을 피하고자 ‘시장접근’* 조항을 제외한 협상을 하더라도 의회 승인이 필수라고 강조
 -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 품목별 관세화·시장개방 정도
 - 폴리티코는 12.11~12.15까지 호주에서 열리는 1차 IPEF 고위급 협상에서 14개 참가국이 지난 9월 채택된 4가지 의제(4 Pillars)를 두고 대화를 나눌 것으로 전망

* 자료 : 폴리티코(12.1), 상원의원 서한(12.1)

□ (정상회담) 백악관, 미·프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 양국 정상은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견해와 협력 의지를 강조
 - 이번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1) NATO를 통한 집단적 안보 유지,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 (3) 인도 태평양 내 협력 강화, (4) 중동 안보 및 핵 비확산 협력 강화, (5) 다자간 무역 시스템 참여 의지 확인, (6) 양자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증대 등
-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 성과를 위해 “동맹을 배제할 의도는 없다”라고 언급
 - 유럽연합이 우려를 표한 법안 내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 예외 적용’에 대해 동맹국을 의미하는 문구로 해명
 -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동맹국의 희생으로 이루지 않겠다고 덧붙여 법안 일부 수정 가능성에 현지 반응 집중

* 자료 : 백악관 보도자료(12.1), 인사이드트레이드(12.1)

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Wall Street Journal	<p>November Employment Report Shows U.S. Economy Added 263,000 Jobs (11월 미국 일자리 26만개 추가, 노동시장 견고함 증명)</p> <p>https://www.wsj.com/articles/november-jobs-report-unemployment-rate-economy-growth-2022-11669944597</p>
The Washington Post	<p>U.S. added 263,000 jobs in November, a strong showing amid tech slowdown (테크기업 부진에도 미국 일자리 지표 긍정신호)</p> <p>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2/12/02/jobs-report-november-economy/</p>
New York Times	<p>U.S. Hiring Continues at Robust Pace, Complicating Fed's Path (견고한 미국 고용 증가, 연준의 고심은 깊어간다)</p> <p>https://www.nytimes.com/live/2022/12/02/business/jobs-report-november-economy</p>
CNN	<p>Trump's classic delay and divert legal strategy is running out of road (트럼프 법적 연패 행진은 계속된다)</p> <p>https://www.cnn.com/2022/12/02/politics/trump-legal-strategy-analysis/index.html</p>
USA Today	<p>November jobs report: Unemployment rate held steady at 3.7% with 263,000 jobs added (미국 노동지표 발표, 견고한 실업률과 26만 일자리 추가)</p> <p>https://www.usatoday.com/story/money/economy/2022/12/02/november-jobs-report-stock-market-unemployment/10813377002/</p>

Notice

주요 경제통상 일정

※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자료발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규정 마련 동향 및 주요내용(US22-46)

필수 에너지·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 및 주요내용(US22-45)

미국 3분기 수출입 실적 분석 및 현지전망(US22-44)

미국 양당 중간선거 공약 주요내용 및 선거결과 전망(US22-43)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발표에따른 경제 전망(US22-42)

미국 바이오 방어전략 주요 내용 및 시사점(US22-41)

미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경과 및 우리 수출영향 분석(US22-40)

미국 산업안보국(BIS)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주요내용 및 현지반응(US22-39)

바이아메리카 정책 후퇴로 본 IRA 전기차 전망(US22-37)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US22-기획4)

미국 프렌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US22-기획3)

- (인터뷰) 前상무부 수출통제 담당 차관보 케빈 울프(12월 5일 인터뷰 예정)

 <p>민주당 텃밭 메릴랜드주에서 재선에 성공한 공화당 주지사는 바로 나!</p> <p>래리 호건 주지사 이야기 한국산 Covid-19 테스트키트, 한-미 바이오 협력, 대형 계획은?</p>	
 <p>U.S. Chamber of Commerce</p> <p>미·중 글로벌 패권 분쟁</p> <p>미국의 프렌드쇼어링,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찰스 프리먼 선임 부회장이 들려주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미·중 분쟁</p> <p>kotra</p>	

